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총 22년 확정...2039년 출소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며 선거개입 혐의 등으로 받은 징역2년과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또다른 핵심인물 최서원(최순실)씨는 이미 징역18년과 20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제를 꺼내들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재상 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그룹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칼럼

구치소 담장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전 국민이 약 5천 만 명이고 남녀 비율이 유사한데 그 중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를 다녀온 인원이 얼마나 될까.

저지르는 것이고 살다보면 입안에 혀도 물리는 게 세상이다 보니 일명 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원칙은 있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사도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판사도 오판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과정에 죄 없는 사람

서울시, 10년 혁신정책 총정리 백서 '다행이다, 서울' 발간

서울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서울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정책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서울혁신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실적 위주의 평가 지양 및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연령대와 환경에 맞는 홍보 등을 제안했다.

백서 발간을 위해 온라인 시민워크숍을 진행했다. 20~60대 시민이 온라인에서 디브이디엠(DVDM)질문법을 통해 서울시 혁신 정책의 정의(Definition), 가치(Value), 어려움(Difficulty), 방법(Method)을 질문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토론했다.

한 시민들은 정책 제감 지수를 주요 성과로 도입하고 실패한 정책을 명확하게 실패로 규정하고

2장(Part2)에는 시민이 사랑한 정책 16개를 소개한다. 시민의 삶과 일상을 한단계 더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을 선정했다.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과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 등을 꼽았다.

을 상세하게 담은 '서울혁신백서'와 함께 요약본도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최광수기자

영양군의회 홍보 포스터. '주렁~주렁~'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기는 영양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영양군의회 로고와 '의회'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장애인 직접 참여로 '코로나 대응 매뉴얼' 제작... 유형·시설별 10종

20대~60대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참여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장애인 인식도 개선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왔지만 체감하는 고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부모단체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유형과 시설별 맞춤형의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을 제작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외출·귀가시 등 일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생활수칙과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부모단체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뉴얼 개발·제작을 추진했다. 예컨대, 손 끝 감각으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활동지원사는 문고리나 계단 난간 같이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사물의 접촉면을 자주 소독해줘야 한다. 마스크 착용법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은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장애인복지시설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과 동영상 제작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29명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콘텐츠 기획부터 삽화 그리기, 동영상 촬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참가자들이 장애유형별 협회와 시설에 배치해 현장을 직접 보고 장애인들과의 면담기회도 제공했다. 또, 동영상 촬영·편집 등 기술 분야를 비롯해 각 단계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외출·귀가,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출입, 장애인시설 이용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행동요령 등을 소개한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포스터, 달력, 교재 등으로 제작됐다. 이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를 위한 교재인 '슬기로운 주간보호생활'은 발달장애인 코로나 방역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됐다. 시는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 형태로 된 매뉴얼을 영상으로도 제작했다. 매뉴얼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 주고 수어와 자막을 추가했다.

영상·음성 매뉴얼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 림프마스크 소개 및 구매방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내운동 및 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제작됐다. 또, 각 동영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한 장애인

포스터도 제작해 원하는 영상을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이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로 했던 매뉴얼 제작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업과 재택근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이해와 공감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참가자가 중도포기하거나 매뉴얼 제작이 잠시 중단·지연되는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자들과 함께 작업했던 관련 협회 및 단체의 협조, 컨설팅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같은 상황을 봉합하고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업 컨설팅을 맡았던 인천대 전지혜 교수가 사업 전·후로 참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2.42점에서 3.92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소감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에서 이해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자리의 의미를 깨달았다', '장애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서울시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4개 주제로 범주화됐다. 향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강이나 교육 형태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사업은 작업장 배치에서 끝나던 공공일자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 모델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서울시가 제작한 매뉴얼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관악구,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으로 작가가 된 청년들

전문적인 온라인 수업과 꼼꼼한 피드백으로 개선 있는 이모티콘 개발에 기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혼자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어 네이버 마켓에 등록하게 됐어요" 관악구에 서 운영한 온라인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참여한 권모씨의 말이다. 관악구는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이모티콘 작가가 꿈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자기만의 개성과 재미있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한 이모티콘으로 수입을 만들고 부가적인 아이디어 상품까지 만들 수 있는 트렌드와 실용성을 담아 계획된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 제작한 이모티콘이 SNS에 등록되어 정식 작가가 된 청년들이 있다. 김모씨와 권모씨가 그 주인공이다. 김모씨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신청했다. 그는 단기간 고집중 트레이닝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며 "캐릭터의 성격을 기획하는 단계가 가장 기억에 남고 기획 단계의 완성도가 곧 이모티콘의 완성도라는 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권모씨는 이번 수업

때 배운 내용을 활용해 혼자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어 네이버 OGQ 마켓에 등록을 마쳤다. 이 청년은 처음 포토샵을 다루는 사람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진행되는 수업과 꼼꼼한 피드백이 장점이라며 "마켓에 이모티콘을 등록하는 방법, 이모티콘 시장의 현실 등 현실적인 조언까지 해주셔서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AI-VR 면접체결관 운영,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 '관악 청년을 위한 청정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크리에이터 콘텐츠 양성 공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며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관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남권 4개 자치구, 안양천 명소화 힘모은다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조성, 시설 공유 등 서비스 협력 합의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에서 발원해 안양, 광명을 거쳐 서울 한강까지 총 32.5km를 흐르는 하천이다. 안양천 서울구간은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 서남권 5개 자치구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금천구는 안양천을 서울시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금천을 포함한 4개 자치구가 힘을 모으기로 하고 12일 오전 10시 30분 '안양천 명소화 사업' 온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자치구는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4개 자치구로 각 구는 1월 12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안양천 총 21.7km 구간에 걸쳐 사업추진, 관리 등 제반사항에 적

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개 자치구는 협약에 따라 각 관리 구간에 장미를 테마로한 대규모 이벤트 공간을 공동 조성해 안양천 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안양천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상호 연계추진하고 '특정시설의 과다한 중복설치 억제', '안양천 내 각종 시설 공유', '산책로 등 보행 연속성 확보', '위해시설 합동조사 및 제거' 등 안양천 발전에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금천구에 걸친 안양천은 총 6km 구간으로 구는 안양천을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명소로 만들기 위해 한내장미원, 농촌풍경길, 테마풍경길, 생태덧는 등 다양



한 그린SOC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는 그동안 안양천을 구의 대표적인 힐링명소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한층 더 사랑된 안양천의 경치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인접자치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동구, 저출산 대응 출산·양육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을 위한 출산특별장려금, 입학축하금 지원

강동구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구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만원 상향해 40만원 지원한다. 기존의 첫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도 지속된다. 또,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그 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가정은 세대에 신청 익월부터 막내의 나이와 만 5세가 될 때까지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의 출산특별장려금을 지원하고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올해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출산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력, 일자리, 가족, 돌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마포구, 공영주차장에 경찰 연계 안심비상벨 설치 확대

마포구가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 안심비상벨 15개를 지역 내 공영주차장 2곳에 최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비상벨 설치 장소는 지난해 신설된 대흥공영주차장,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대흥공영주차장 2개,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A동 4개, B동 9개 등 총 15개의 안심비상벨을 설치 완료했다. 설치 장소는 주차장 유도인구와 관리인력 상주 여부 등이 고려됐다.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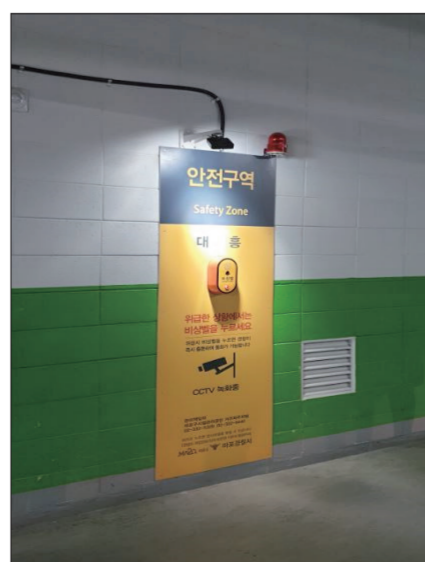
의 위치가 마포경찰서로 즉시 전송되며 주변의 순찰차에 신고 위치 정보가 담긴 문자를 자동 전송 받게 된다. 또, 112 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돼 비상벨에 내장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경찰과 즉시 통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주차장 내부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해 위기상황을 주변에 빠르게 알리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또한,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하는 LED 조명등이 안심비상벨 상단에 추가 설치됐으며 주변 환경 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색감으로 디자인됐다. 한편 마

포구는 이전까지 총 44대의 안심비상벨을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신설된 대흥공영주차장과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험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안심비상벨 설치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문제에 빈틈없는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코로나걱정뚝”마이데이터 대중교통 코로나안심이용앱 My-T‘마이티’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확진 시에도 확진자 이동 동선 확인 등 신속 안내

앞으로는 나의 이동정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이동 시 나의 동선 중 확진자 동선이 겹칠 경우 코로나안심 앱인 “My-T”에서 자동 알람이 울리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확진됐을 때에도 동선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에 더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겹침 알람, 혼잡도가 될 한 경로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My-T”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에 더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겹침 알람, 혼잡도가 될 한 경로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My-T”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y-T” 앱에서 수집되는 개인 위치정보와 대중교통 운행정보, 교통카드 승하차정보, 교통수단별 Wi-Fi 정보 등이 결합·분석되어 개인 동행·이동 궤적과 확진자 이동 동선을 비교해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준다. “My-T” 앱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개인의 동행 이동 궤적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인에게 동행특성 분석 및 최적화 된 맞춤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1’에 선정되어 개발됐다.

자판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인은 각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 정보를 업체 등에 제공해 시간, 장소, 상환 등에 맞춰 시시각각 변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서울시, 한국교통연구원, BC카드, 유아이네트웍스, KST 모빌리티, 네이앰컴퍼니, KCB 사업수행 “My-T” 앱에서는 코로나 19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노출 알림 정보 대중교통 혼잡도 기반 길찾기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My-T” 앱은 나의 이동경로를 통해 확진자 동선 겹침 확인, 확진자 접촉 알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나의 이동 경로 중 확진자 이동 정보와 겹

쳤을 때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버스, 택시 등 공공교통수단 운수종사자가 확진됐을 경우에도 해당 차량 탑승객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동선 정보 미제공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My-T” 앱을 통해 확진자 이동 동선 겹침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혼잡도 등을 안내 해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피해 코로나 19에 안심하고 다른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길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길찾기 서비스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한적한 걸 선호하는 이용자에게는 혼잡도가 덜 한 경로를,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하는 이용자에게는 지하철 중심 경로를, 걷기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는 걷기 편한 경로를 각각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따릉이 등 나의 이동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의 서비스와도 결합해 쿠폰, 할인,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저상버스를 타야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류소에서 탑승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전에는 운수회사의 유선 예약을 통해 저상 버스를 예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My-T 앱에서 예약이 가능해져 저상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3년 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복경로 등 ‘안심이용’ 서비스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마이데이터 정보의 결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 적립·요금 할인 제공,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반영한 신용등급을 향상 서비스, 데이터 판매 수익 환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민이 코로나19 걱정없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My-T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소기업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교통 허브 생태계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아산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만65세이상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아산시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응한 방침이다. 이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가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1억원, 월 834만원이 넘거나 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오세현 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를 조사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구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생계	3,460,000원	주거	2,500,000원
의료	2,900,000원	교육	2,500,000원

경기도 스타트업 84%, “코로나19로 힘들어요”

코로나19는 기술기반 기업인 스타트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분야 수요 창출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기연구원 이 지난 2020년 6월 스타트업·벤처기업·혁신기업의 창업자, 대표이사,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경기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간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0%는 코로나19가 스타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어려운 요소로는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면활동 제약으로 마케팅 위축’, ‘글로벌 진출 계획의 연기·취소와 해외 교류 제약’ 순이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요소로는 과반수가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지원사업 확대’라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한 산업 분야는 ‘의료’, ‘비대면 기반 기술’, ‘소비’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 활동’ 단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기도와 정부 정책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이었으며 ‘창업 기반시설 제공 지원’이 뒤를 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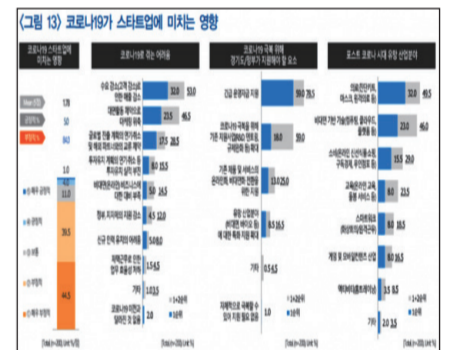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업이 매력적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1.0%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새로운 기술의 수요 증가’와 ‘새로운 창업 기회 증가’를 그 이유로 꼽았다. ‘투자유치 활동’ 단계에서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이유로 ‘대면활동 제약으로 투자자와 협의 기회 위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확대’, ‘직접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47.0%가 부정적이라고 말했으며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한 전

반적인 투자 위축’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글로벌 진출’ 단계에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글로벌 진출계획의 연기·취소와 해외 파트너와의 교류 제약’, ‘해외 현지 영업·마케팅 위축’으로 인한 신규고객 및 수수료 감소’라고 응답했다. 경기도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요소로는 ‘해외 현지 핵심기업과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온라인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를 꼽았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이 추진된다. ‘인수합병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스타트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

업 인수합병 시장에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로 ‘의료’, ‘비대면 기반 기술’, ‘소비’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는 매출 감소, 마케팅 위축, 비즈니스 기획 축소 등 스타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라 보는 긍정적인 반응도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영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는 ‘창업 → 성장 → 글로벌 진출 → 회수’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창업생태계를 따르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악화와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발굴과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최정근기자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로 쉽게 받자” 경기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

종이서류 대신 모바일로 편리하게 통지서 받을 수 있어·93만여명 대상

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등기 우편비용이나 반송 등의 문제로 읍면동 현장에서는 통지서 전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시범사업에' 응모했고 이어 4월경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된 사업비를 토대로 지난해 말 시스



템 구축을 완료, 올해 1월부터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1월 13일에는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지서 발송의 보안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 시스템은 올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민방위대원 93만여명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

라 각 시군에서는 민방위대원의 정보를 도의 시스템과 연동, 암호화된 연계정보인 시아이값으로 전환 후 모바일 중계사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받은 민방위대원은 전자고지의 본인동의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단순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이외에도, 규약 코드를 활용한 출결처리, 교육훈련 설문서 작성도 모바일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는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31개 시·군에서 보내는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 요금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혁신"이라며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전까지 테스트를 추진해 성공적인 시행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용인시 아동시청’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용인시가 13일 아동들의 온라인 전용공간인 ‘용인시 아동시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용인시 아동시청’ 홈페이지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든 소통 공간이다. 앞서 시가 발표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도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홈페이지는 용인시청 대표

아동 관련 다양한 정보 눈높이 맞게 제공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용인시 아동시청’을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기존 성인 위주의 정보와 서비스에서 벗어나 친근감 있는 디자인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들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역사와 상징,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담은 ‘우리시 소개’, 시청과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한 ‘시청이야기’, 아동 관련 예산과 정책이 담긴 ‘아

동친화도시’, 축제·행사·체험공간 등을 알리는 ‘용인나들이’, 장난감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소개한 ‘우리들 힘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마당’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들이 아동의 행복과 권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희망한다”며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삼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의정부시, 시민중심의 시 이미지 적극 홍보

오늘은 의정부스타 우승자 김호건 씨 탄생

의정부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은 의정부스타’ 기획영상을 제작해 시민중심의 의정부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미스터트롯을 벤치마킹해 매주 1명의 의정부시민을 주인공으로 노래경연 무대를 영상으로 제작해 의정부시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받은 조회수와 댓글, 좋아요 수를 합산한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우승자로 선정해 우승자의 뮤직비디오를 제작 및 의정부TV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회 우승자는 의정부시 호원2동 주민으로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호건 씨로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불렀으며 3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해 1만여 회를 기록한 다른 출연자보다 월등히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우승자 김호건 씨는 의정부에서 개최된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KBS, SBS, EBS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건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즐겨 불



렀는데 의정부에서 주최한 의정부스타에서 우승하게 되어 기쁘다”며 “의정부시가 화사한 봄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의정부TV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대 홍보과장은 “시민중심의 의정부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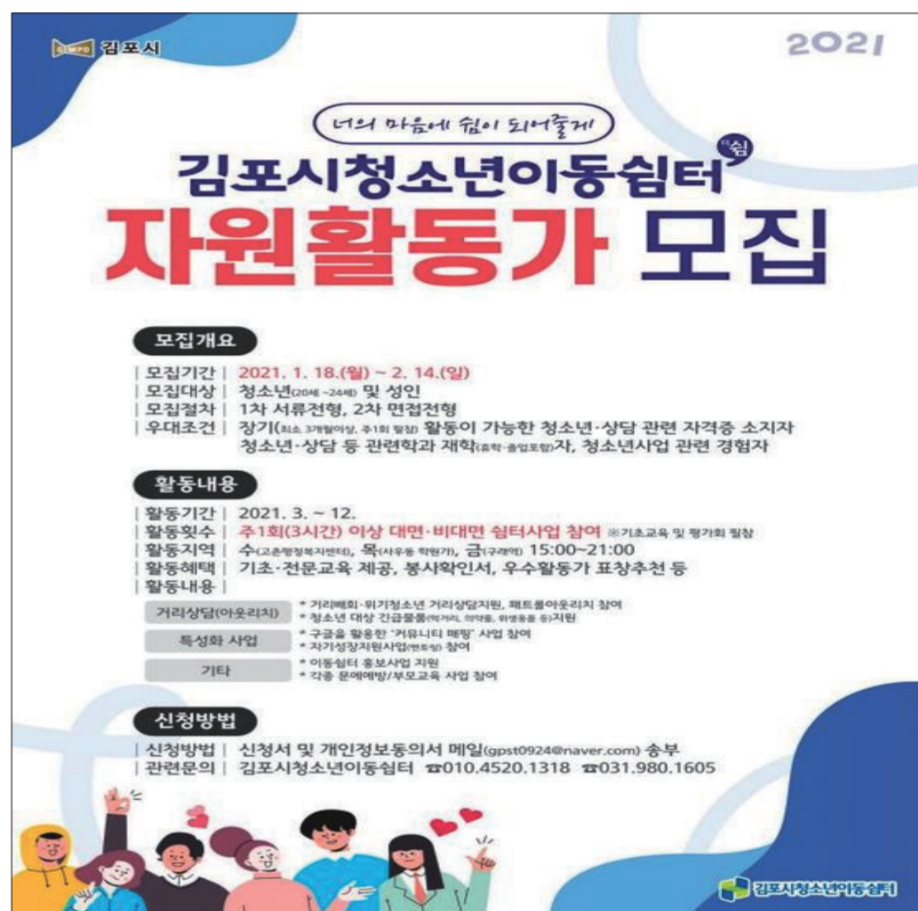
오늘은 의정부스타 기획영상 제작에 출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새해에도 오늘은 의정부스타 기획영상 제작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 2021년 ‘자원활동가’ 모집

우리가 너희의 삶이 되어줄게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는 2021년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자원활동가’는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분야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청소년 및 성인이거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청소 등의 위기 지원을 위한 거리상담과 각종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에서 마련한 대면/비대면 활동에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활동내용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부여, 각종 교육 제공, 우수활동가 표창추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원활동가’ 참가방법은 신청서를 작성 대표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해당 양식은 쉼터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으로 범죄·비행 예방,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복귀·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형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이다. 김포시청소년이동쉼터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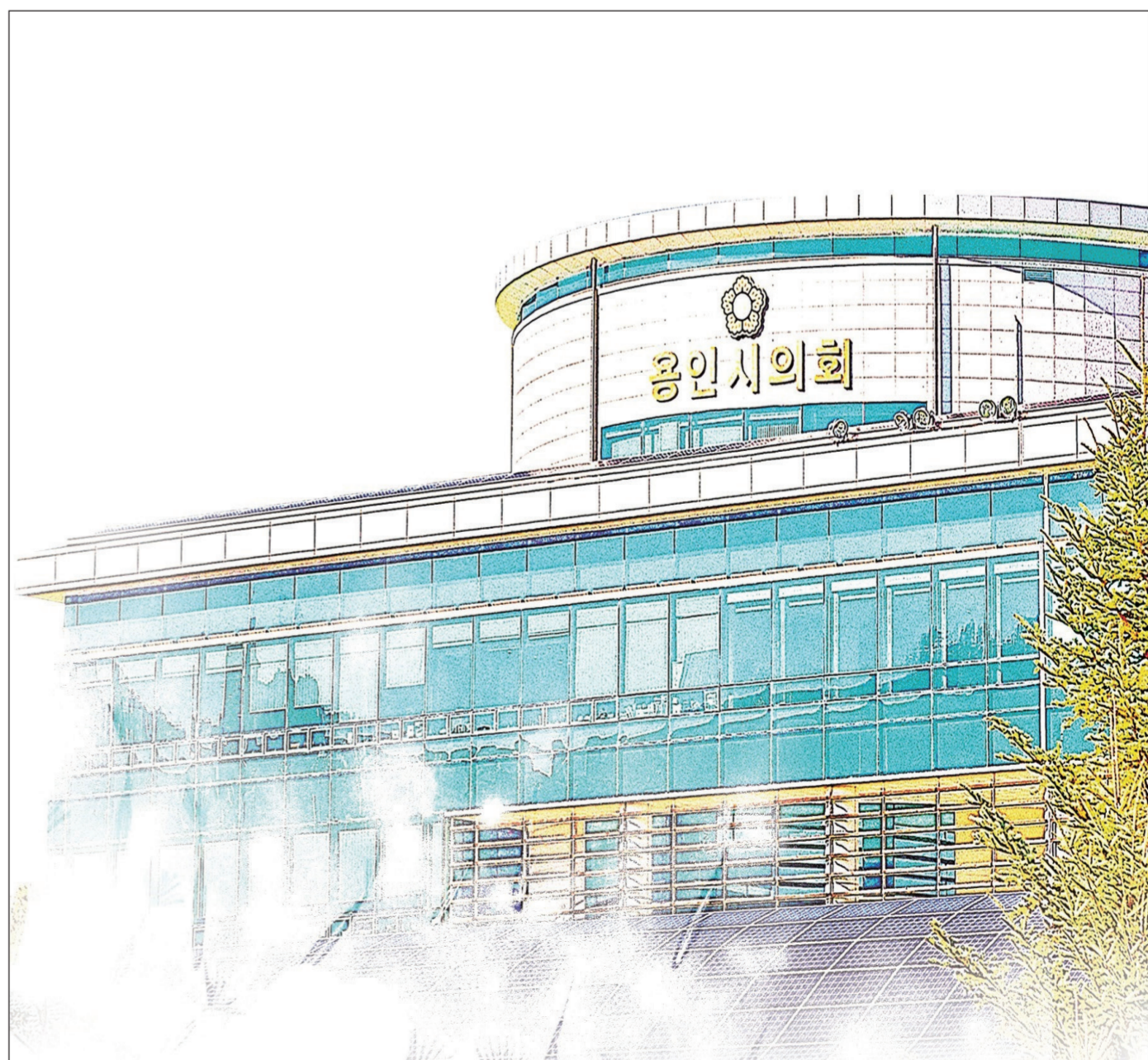
동 상담서비스를 활용한 이동형 청소년쉼터로 가출 등의 다양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의료, 위생 등의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근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시의회
YONGIN CITY COUNCIL



광명시,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소상공인 50% "코로나로 매출 반 이상 감소", 소비패턴 변화가 가장 큰 이유

광명시가 4개월간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시는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사업제 일반 운영 현황, 코로나19 이후 경기전망,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 지원정책,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 만족도 등 4개 분야 12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현장조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441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4410명 중 88%가 임차로 그중 86%가 월세였으며 자가 운영은 9%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55%로 남성 대표자보다 많았다.현재 업종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4%가 직장 또는 그전창업 업종 등 경험을 살려서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업종분석 등 수익성을 고려해 창업한 경우는 10%에 그쳤다.또한 5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액과



고객 수가 50%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패턴변화, 코로나19 직접 영향, 온라인 시장의 성장·주변 지역자원 연계 부족·상권 자체 경쟁력 미비 순으로 답했다.소상공인 영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정보 플랫폼, 상권구조개선, 지역공동체 강화, 도시재생 등 연계, 온라인시장 연계, 광명시 대표 콘텐츠 개발, 주변지역 자원활용, 대중 교통 등 접근성 확대, 산업종신 서비스 창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에 바라는 정책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대출보증 지원 확대, 임대료 제한 등 임

대차보호법 강화, 소상공인 권익보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애단계별 지원 등이 나왔다.광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 만족도는 보통이 38.4%, 불만족이 33%, 만족이 21%였으며 홍보 부족, 지원 금액 불만, 서류의 복잡함 등을 불만족의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도 임대료 지원, 공공배달 앱 지원, 보편적 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문자를 활용한 홍보, 소상공인 민원 신청 시스템 마련, 권역별 소상공인 대표 선출을 통한 의견 공유 등의 요청이 있었다.광명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상권분석, 홍보, 유관 기관 연결, 민원 상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온라인 창구인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상권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이동 콘서트로 홍보를 강화한다.소상공인 공공배달앱인 경기도 배달서비스 '배달특급'으로 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스마트 상점가 시범사업, 스마트 슈퍼마켓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시름에 깊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광명시가 산다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양평군, 예산 7억 9천만원 투입해 청년 일자리 40개 창출

오는 2월 1일까지 21년 양평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관 모집

양평군에서는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양평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실행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접일자리 사업인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7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해 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공익활동형, 청년활동형 등 5개 유형별로 일자리 경험의 질, 사업장 여건, 정규직 채용계획 등을 고려해 30개의 기관

을 공개모집해 선발한다.참여 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근로자 모집 및 인건비는 양평군에서 직접 지급한다.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 간 선정된 기업에 청년근로자가 파견근무하게 된다.

참여에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정동균 양평군수는 "군에서는 경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시책을 펼치고 있으니, 관내 기관에서는 청년에게 질 좋은 일경험을 제공해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양평군청 청년팀
양평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관(기업) 모집
2021.01.12 ~ 02.01

"영원한 미스터 토일렛을 기억한다"

새심재덕기념사업회, 12주기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할 수 있는 영상 공개



수원시를 화장실문화 발상지로 만들어낸 '미스터토일렛'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온라인 영상이 공개됐다.새심재덕기념사업회는 오는 14일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12주기를 맞아 추모영상을 만들어 13일 공개했다.

해우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모영상은 5분49초 동안 심 전 시장의 발자취와 업적을 돌아보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영상 도입부에는 심 전 시장이 "늘 웃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힘들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웃을 때 얼굴 표정과 가장부터 사회가 맑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새해 덕담을 하는 생전 모습이 볼 수 있다.

이어 현장 곳곳을 누비던 심 전 시장의 발자취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화장실문화운동의 성과,

이전의 추모행사 등의 사진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새심재덕기념사업회는 매년 심 전 시장의 기일에 추모식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추모를 기획했다.추모영상은 해우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문화운동을 세계에 전파하며 수원을 화장실문화운동의 중심지로 만든 심 전 시장은 수원시장 퇴임 후에도 화장실문화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을 기념해 30여 년간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변기모양을 본뜬 '해우재'를 지었으며 유족들은 2009년 해우재를 수원시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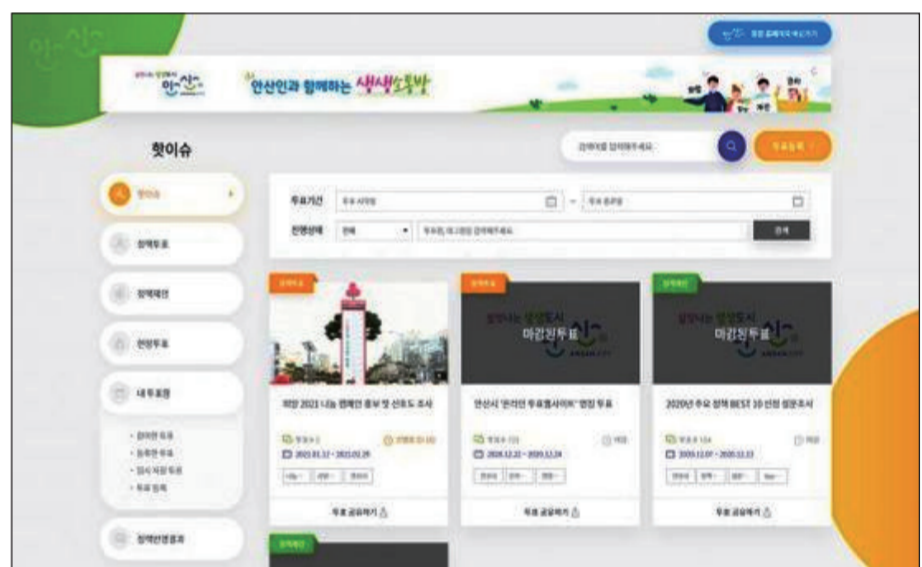
최정근기자

안산시 "온라인으로 소통해요~ 생생소통방 운영"

"시민 의견수렴 빠르고 쉽게~ 생생소통방 웹사이트 오픈"

안산시는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결정부터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사이트 '생생소통방'을 구축해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반응형 웹 기술이 적용된 생생소통방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시는 생생소통방을 활용해 시정과 관련한 설문과 시민의견이 필요한 선로도 조사, 명칭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시민 제안을 받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방침이다.또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시민 대토론회와 원탁회의 등의 시민참여 행사를 재개해 생생소통방을 활용한 현장 투표 등을 할 예정이다.시는 이런 가운데 올해 첫 시민 선로도 조사 주제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정했다. 시는 선로도 조사에서 기부 가능



한 금액과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지원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해 '시민 맞춤형 기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생생소통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양산시, 인구유인력 빅데이터 분석 추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라본 양산시 지역경제

지역 경제는 시대의 변화와 외부 요인으로 성장과 정체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형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쇠퇴 또는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신도시 개발과 공단조성 등으로 꾸준히 성장한 양산시도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가까운 미래에 경제 정체에 도래할 것이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양산시 인구유인력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지역경제 변동 분석을 시작으로 인구구조, 산업경제, 혁신·창업, 인재유인력 특성, 미래유망산업 선정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생산 가능한 인재가 양산시에 지속적 유인될 수 있는 정책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할 계획으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로 분석된 양산시의 지역경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 경제라는 용어는 “지역 성장”과 “지역 발전”의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역 성장은 생산요소나 산출물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반면, 지역 발전은 지역의 순환적 자립성을 포함한 질적 수준의 증대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로 확인된 양산의 경제는 양적성장으로 빠르게 발전한 지역경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울산 및 부산 등에 이접한 제조업체들이 양산시의 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급속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 결과 총량적 경제의 크기를 대표하는 지역 내 총생산도 매년 빠른 성장을 실현했다. 특히 1998~2017년간 양산시의 GRDP는 3.3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 기준 경남 18개 시군 중 3위를 차지했다.

양산시의 총량 경제가 빠른 성장을 구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집적이 크게 기여해, “일지리를 찾기 위해 역외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의 규모도 확장되는 선순환적 과정”이 작동한 결과이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산의 지역 경제는 침체 현상이 발현되다. 질적 성장을 대변하는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전후부터 양산시 지역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로 확인됐고 1998~2003년 동안은 양산시의 1인당 GRDP가 경남 평균에 비해 5배만 원 이상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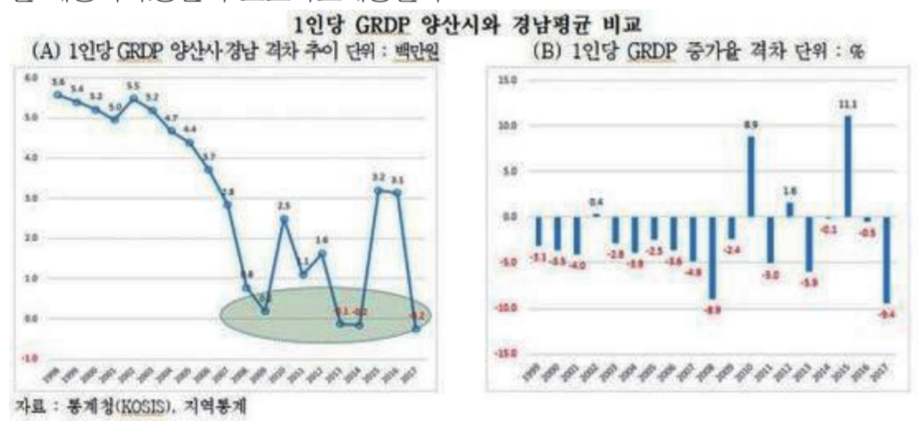
되어 경남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이 입지해 총량적인 생산성이 증대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고용 창출 역시 증가해 시민의 소득도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부가

가치가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상당수 입지할 경우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지역주민 체감도는 지역경제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경우 생산성이 높은 역내 전문인력이 역외로 유출되고 역외로부터 인재유입이 차단되는 현상”을 초래해 인구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다. 위 표는 17년간 경상남도 전체 시군의 경제 흐름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이다. 양산시 인구요인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이나, 성장 지역에 속한 6개 지역 중에서 소득 증가율은 낮아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은 경제원 작가와의 만남을 오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코로나로 지친 5~7세 유아 대상으로 책에 대한 즐거움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했으며 안전한 진행을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룡들의 한 입만, 나의 한 입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은 그림책을 살펴보고 공룡 이야기 듣는 시간과 공룡 색칠하기, 공룡 화석 만들기 등이 책놀이 활동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책놀이 재료는 수강자에게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경제원 작가는 ‘한 입만, 내가 더 커’, ‘공룡 엑스레이’, ‘엘레베이터’ 등 공룡과 관련된 다수의 그림책을 쓰고 그렸으며 특히 ‘내가 더 커’는 2019년도 양산시 북스타트 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작가와의 만남은 1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5~7세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립도서관에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인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은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독서교실, 휴먼라이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산시 보도자료제공일자

최만식기자



산청꽃감 온라인 축제 판매 이벤트 대박행진

네이버 ‘쇼핑라이브’ 9분만 완판...1만9000여명 시청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14회 지리산산청꽃감축제의 비대면 판매 이벤트가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산청군은 지난 7일 오후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된 산청꽃감 명절선물세트 300개 할인판매 행사가 9분 만에 매진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산청꽃감 쇼핑라이브는 방송시간 1시간 동안 1만9275명이 접속해 시청했다. 총 댓글 수 1만8614개, 좋아요 2만5687개를 기록, 산청꽃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산청꽃감 쇼핑라이브의 시청자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며 20대도 15% 정도인 것으로 집계돼 젊은층의 산청꽃감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축제인 ‘산청고종시’로 만든 지리산산청꽃감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지리산산청꽃감은 자연조건을 활용한 가공기술의 발달로 다른 주산지 꽃감에 비해 비타민C의 함유량이 2배~20배정도 많아 겨울철 으뜸 간식으로 손꼽힌다. 또 고품질과



산청군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두 번째 산청꽃감 ‘쇼핑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기 개그맨 최기정씨가 진행하며 새로운 품목인 감말랭이와 홍시젤리 등을 선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과일 5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된 ‘산청고종시’로 만든 지리산산청꽃감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지리산산청꽃감은 자연조건을 활용한 가공기술의 발달로 다른 주산지 꽃감에 비해 비타민C의 함유량이 2배~20배정도 많아 겨울철 으뜸 간식으로 손꼽힌다. 또 고품질과

남궁영기자

부산시,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나선다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함께해요 기후위기 대응”

부산시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2개 대표 실천과제를 선정해 월별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과제를 잘 지킬 경우, 연간 1인 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 부산시민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연간 34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동절기인 1월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겨울철 실내기온 20℃ 유지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에 실내기온을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1인당 76.7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는 온라인을 비롯한 옥외 전광판, 게시판,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생활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은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의 건강과 안전, 더불어 경제적 혜택까지 더해지는 그야말로 친환경 생활”이라며 “기후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달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희망도시 의정부

의정부

자연과 함께 숨쉬는 누구나 살고 싶은 푸른도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의정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코로나 집단확산 철저히 경계해야”

김 시장 세계시장 주도...철저한 품질관리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코로나 상황이 새해들어 전남은 주춤해 통제 범위에 있어 다행이다”며 “자칫 집단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노력해준 공직자와 일선 현장에서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백신접종이 질서있게 잘 추진토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이동통제소소를 운영한 가운데 발생되고 있다”며 “결국 농장단위의 방역이 발생의 관건이 되고 있어 조사기동대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로 만약 발생될 경우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기인사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인사는 상대적으로 만족과 아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다”며 “앞으로 근평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역량이 반영된 성과중심의 근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평제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형성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김 수출 3억불 달성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세계 김 생산량의 40%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보다 가격 면에서 낮게 형성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은 앞으로 체험관광과 농업의 융복합화 측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융복합화와 연계시켜 생태마을을 그린뉴딜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새천년인재육성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선책과 함께 가족단위와 동호인들을 통한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환경과도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김영록기자

나주시, ‘강소농 지원사업’ 경영체 모집... 체계적 교육 지원

나주시가 농사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농업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갖춘 ‘강소농’ 지원·육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2021년도 강소농 지원사업 대상 농업 경영체를 오는 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관내 중소규모 농업인이다. 시는 대상 농가의 표준역량 진단을 통해 스스로 경영 혁신 목표를 설정,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영개선을 위한 실천’, ‘농가 진단·분석을 통한 단계적 현장컨설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가경영 개선 실천노트 작성법’, ‘모바일을 이용한 마케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소규모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나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영 규모는 작지만 스스로 끊임없는 역량 개발을 통해 경영 혁신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 강소농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을 뒷받침할 비대면 농정 시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 강소농사업 지원 농업경영체 모집 공고

모집기간
2021. 1. 12(화) ~ 2. 2(화) / 22일간

접수방법
지원신청서 및 농지원부 각 1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농장소재지 사무실)

모집대상
미대상농가농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역량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교육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교육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대상지역
2021. 2. 5(목) | 농특자민자 개발지역

교육기간
2021. 2. - 2021. 12

문의 | 지도행정팀 T.061-339-7425

장흥군, 향기 가득 품은 주홍빛 보물 ‘향그레 레드향’ 수확

장흥군은 지난 11일 신축년의 새로운 기운을 머금고 향기롭게 결실을 맺은 레드향을 수확했다고 전했다. 원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만감류 레드향은 6년 전 장흥에 도입되어 높은 수확량 및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다. 레드향은 토마토 등 다른 작목과 비교해 수확할 때 손이 덜 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흥 지역은 제주도와 비교해서 일조량이 많고 봄이 되면 해풍이 많이 불어와 레드향의 당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존 시설 원예 작목의 경쟁력이 낮아져 새로운 작목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흥군은 레드향을 기후 변화 대체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현재 장

흥군 22농가에서 9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주 수확기는 12월~2월로 온주밀감에 비해 특유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장흥 레드향 향그레의 당도는 평균 15브릭스로 다른 만감류와 비교해 단맛이 강한 것은 물론,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 많이 찾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풍부한 단맛과 과즙을 자랑하는 레드향은 이제 장흥에 없어서는 안 될 인기 작물로 부상했다”며 “앞으로도 레드향처럼 장흥의 기후에 알맞은 아열대 과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장흥의 원예작물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땅끝가족어울림센터 2월 착공 ‘가족행복 랜드마크’ 조성

해남군 출산과 보육, 돌봄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다음달 착공한다. 센터는 내년 초 공사를 마치고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2월 29일 생활SOC 복합화 시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동네부엌, 동네카페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시설이다. 해남읍 구교리 공공도서관 부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약 4,200㎡로 건립된다. 2012~2018년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해남군의 선진적인 출산정책을 반영하는 한편 보육과 돌봄, 가족건강 등 복합화 기능을 갖춘 시설로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인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만들기’를 위한 기반 시설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실시설계 단계부터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어린이집 종사자, 맘카페 회원, 다문화가족센터 관계자, 마을주민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4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왔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공간구성부문 우수사례 공모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향후 가족센터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벤치마

킹 및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완료 후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 단계 중으로 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해남군 출산, 양육 정책의 핵심 기능을 이끌어갈 땅끝가족어울림센터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족어울림센터를 가족 행복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양영을기자



‘보성물’에서 푹 소리나게 쇼핑하자... 설맞이 특별 할인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1월11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맞이 특별 할인 기간에는 기본 10%에서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보성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신규회원 5,000원 포인트 적립, 상품 후기 작성 시 1,000원 포인트 적립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천연염색 마스크도 증정한다. ‘보성물’에는 110개 업체, 700여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12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청정자연에서 키운 녹차, 키위, 벌교꼬막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명절에 알맞은 선물세트 45종도 구비돼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차는 바이러스 예방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선물로 적극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녹차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호흡기계 질병과 독감이 3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성군

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 비접촉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보성물’ 운영을 활성화 하고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록기자

보성물 구입혜택

전품목 10% 이상 할인

신규회원 적립쿠폰 5,000원 지급

5% 구매직접금 지급

상품후기 작성 시 1,000원 적립금 지급

행사기간 중 10만원 이상 구매 시 천연염색마스크 1인 1개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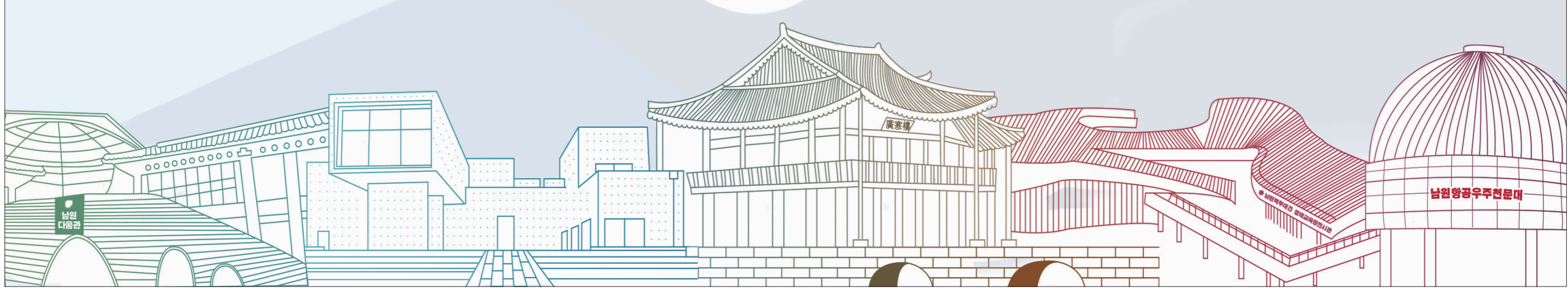
이벤트 기간 1.11~2.10

보성물 우리군에서 생산되며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안전·보성물입니다.

문의 : 061-650-5643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단양군, 생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

계룡시, 2020 여성통계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관광1번지 단양군이 생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기저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경제 구현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건다.군은 먼저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신속한 민생경제회복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펼친다.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600명, 1억1000만원 한도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카드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인 제로페이 가입도 적극 독려한다.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20억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도 1억2500만원을 지원해 향토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1억4700만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정책도 추진한다.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내 고장 생산품 팔아주기과 착한업소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는 소규모 시설개선



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39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지역 내 소비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판매고 50억원과 가맹점 1100개소를 목표로 신규사채인 카드형 지역상품권도 도입한다.27일부터 개시되는 카드형 단양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인 4%의 배가 넘는 10%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체류형 관광을 견인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육성책도 지속 추진된다.올해는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2년차를 맞아 4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장 내에 디저트 라운지, 특화상품 갤러리, 시즌별 특화 이벤트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매포전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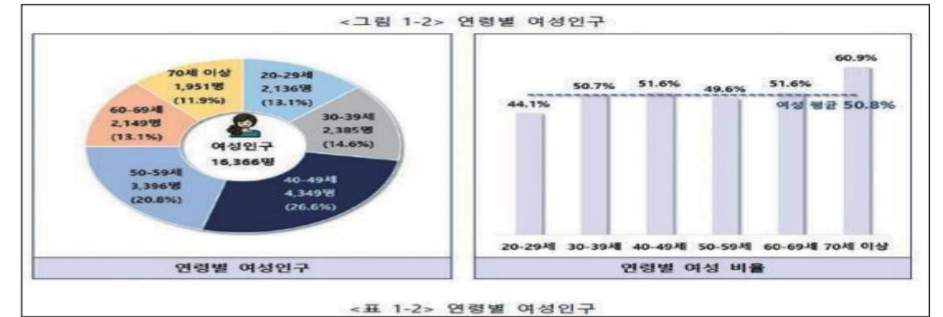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과 함께 단양구경시장 주차장 데크 교체, 매포전통시장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단양구경시장 유튜브 생방송 등 비대면 마케팅도 강화한다.군은 청년창업과 방역일자리 등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2억4000만원, 생산적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4235명의 참여를 목표로 6억원을 투입해 고용과 생계를 잡는 일거양득형 일자리 창출에도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류한우 단양군수는 "단양군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력을 군정의 우선 목표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펼치겠다"며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올해도 지역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군민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예정

계룡시는 시의 여성인구, 경제, 일자리, 복지 및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2020 여성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시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과 연계한 복합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통계 보고서를 작성·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여성통계 보고서는 ▲여성인구 ▲가구·가족 ▲경제 ▲주거 ▲복지 ▲건강 등 총 6개 부문 67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시는 단순히 각 부문의 수치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계활용 목적과 사용주체에 맞는 가공된 정보를 제공해 여성통계가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여성통계 개발로 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여성통계를 시장 전 부문에 걸쳐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서산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에 주의하세요

공주시,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재도약"

손 씻기, 손잡이 등 소독, 날 것 익히고 물 끓여먹기 등 수칙 준수 당부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서산시가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노로바이러스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 주로 활동하며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물, 구토물 등으로 감염 될 수 있다.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복통·오한·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소량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전염력이 높으며 집단급식소나 집단생활시설 등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있는 시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및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을 생활화해야하며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희석·소독하는 것이 좋다.겨울철 주로 먹는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먹고 채소 및 과일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어야하며 지하수 등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김지번 정신보건위생과장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음식물 조리해 먹기, 지하수 등 물 끓여 먹기와 같은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위생관리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공주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각 분야별 시정 계획과 새로운 시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순서로 문화·복지 분야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강석광 문화복지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주시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충청권 국악자원 복원 및 재현, 국악 저변확대 사업, 대외활동 등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보다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특히 무령왕릉 발굴 50년, 무령왕의 경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기념해 무령왕 동상 건립, 엠블럼 제작, 2021 대백제전 개최 등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에도 주력한다.시는 올해를 '어르신친화도시'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노인 건강과 여가활동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친화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를 맞아 '여성이 행복한 공주' 슬로건에



맞도록 성 평등 정책과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등 공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또한, 공주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신청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현에 나선다.이와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웅진지구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강 국장은 "문화·복지·환경 분야는 우리시의 대내외적 위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역사문화도시로 재도약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복지 서비스 강화,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빈틈없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침묵의 살인자,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까?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다.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실내(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침묵의 살인자”를 주의해야 한다. 침묵의 살인자란 일산화탄소(CO)를 말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연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며, 인체의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급격히 반응해 산소의 순환 방해로 산소결핍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할경우 뇌·심장 근육 기능 저하 및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 인체 영향으로는 (20ppm) 정상농도, (200ppm) 2~3시간 내 가벼운 두통, (400ppm) 1~2시간에 전두통, 2.5~3시간에 후두통, (800ppm) 45분에 두통·매스꺼움·구토, 2시간 내 실신, (1,600ppm) 2시간이 지나면 사망, (3,200ppm) 5~10분 내 두통·매스꺼움, 30분 뒤 사망,



(6,400ppm) 2~5분내 두통·매스꺼움, 15분 뒤 사망, (12,800ppm) 1~3분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자료 : 가스안전공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할 만큼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 한 달 새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상자가 7명(사망 3명 포함)이나 되며, 2018년 12월 강릉에서는 가스보일러 연통이 빠져일

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0명(사망 3명, 의식불명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사례를 보면 화재 및 보일러·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시 안전점검 무관심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법으로는 ▲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확인·내부 이물질 제거,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등 주기적인 점검 ▲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 ▲ 밀폐된 장소(텐트·차량 내부)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금지 ▲ 캠핑이나 여행 시에는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 ▲ 주택용 소방시설(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설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시설 내 활동이 늘어난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김영근기자

정영희 제4대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

12일 취임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

정영희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2일 비대면 화상 총회를 열고 정영희 아이코리아 청주시지회장을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취임식을 진행했다. 새로 취임하는 정영희 협의회장은 “청주시여성단체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다져놓은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청주시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꼭 필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러 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인 만큼 서로 도움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정영희 협의회장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0여 년 간 지역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한국부인회 청원구회장, 아이코리아 청주시지회장, 오창읍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필요한 봉사를 세심하게 실행해왔으며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최만식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자치분권 2.0시대 소망 공유...다음 주자 정선·청양·부안군수 지목

윤화섭 안산시장은 12일 ‘자치분권 2.0시대’를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 시장은 챌린지 참여 문구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안산시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로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



다. 지명을 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소망하는 뜻깊은 챌린지에 이승율 청도군수님의 지명을 받고 동참했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막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안산시민과 함께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최정부기자

노박래 서천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응원

노박래 서천군수는 13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시행되는 자치경찰법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번 챌린지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각오를 다지고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며 응원 메

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석환 홍성군수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노박래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김돈곤 청양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노박래 군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우리 삶을 바꾸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해나가며 더욱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잠시 멈춰 아이들 교통안전 지키자”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충곤 화순군수가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구 군수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챌린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승욱 강진군수와 류태호 태백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구충곤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충분히 살핀 후 운전하자”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생명

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충곤 군수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형식 담양군수, 최기천 화순군

의회 의장, 최원식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김영만기자



양승조 지사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주민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 다짐

양승조 충남지사가 13일 자치분권에 대한 메시지를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부활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고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주민의 목

소리가 실현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누리소통망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했다. 양 지사가 지명한 다음 주자는 허태정 대전시장, 김명선 충청도의회 의장 등이다.

최만식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노원구, IT와문화예술이 만났다 '미디어 상상예술여행'

오는 15일까지 중·고등학생 50명 모집

서울 노원구가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문화예술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미디어 상상예술여행'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한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8100만원을 지원받아 마련했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은 IT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첨단기술을 접목한 공연예술과 전시의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공연·전시기획과 무대·조명·음향·영상 등 미래 문화예술 분야 직업군에 대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미디어 상상예술여행 강좌는 아트디자인 카타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5기수로 나누어 운

영한다. 1기수 당 인원은 10명 내외로 모집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총 5회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1회차: 내 목소리로 드럼비트 만들기 2회차: 로봇 리듬 만들기 3회차: 네트워크 조명기술 이해하기 4회차: 내가 만든 영상과 음악으로 맵핑하기 5회차: 랜선 연출하기 등이다. 신청대상은 IT기술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 50명으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IT 기반 신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를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시립중앙도서관, '내가 더 커' 경혜원 작가와의 만남

오는 29일 오후 2시, 관내 5~7세 유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은 경혜원 작가와의 만남을 오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코로나로 지친 5~7세 유아 대상으로 책에 대한 즐거움과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전한 진행을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룡들의 한 입만, 나의 한 입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은 그림책을 살펴보고 공룡 이야기 듣는 시간과 공룡 색칠하기, 공룡 화석 만들기 등이 책놀이 활동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책 놀이 자료는 수강자에게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경혜원 작가는 '한 입만', '내가 더 커', '공룡 엑스레이', '엘레베이터' 등 공룡과 관련된 다수의

그림책을 쓰고 그렸으며 특히 '내가 더 커'는 2019년도 양산시 북스타트 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작가와의 만남은 1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5~7세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립도서관에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인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을 올해도 어렵게 시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독서교실, 휴먼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경영/기자

재미저널리스트 안희경 '세계석학 인터뷰 뒷이야기' 에세이 출간

세계 지식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논문 솜스키와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스위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 언어 과학자 스티븐 핑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교수 제러미 리프킨...

재미 저널리스트 안희경 작가는 작년 7월 세계적인 이틀 석학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류미래를 전망한 '오늘의 세계'를 출간한 데 이어 이들의 인터뷰 과정과 석학 뒷모습 등을 담은 에세이집 '나의 질문'을 최근 국내에서 펴냈다. 인터뷰를 위해 보냈던 수십 통의 연애편지와 같은 섬의 메일을 비롯해 열정을 보였음에도 '거절은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을 담았다.

안 작가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에서 "이틀에 하루꼴로 잠을 청하던 불면의 시간을 지나 비몽을 맞추기 위해 비행기에서 불편한 몸으로 지냈던 무수한 밤을 거쳐 석학들과의 인터뷰는 삶과 삶의 만남이라는 통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안 작가는 "인터뷰는 상대방과 단 둘이 앉아 논 맛춤을 이어가는 몰입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고 쓸모있는 인터뷰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자명한 진실을

알기에 그는 인터뷰의 몰입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작가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석학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의 힘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를 전해준다. 책에는 그의 개인사도 들어있다. 결혼과 함께 맞닥뜨리게 된 이민자로서의 생활,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없어 주눅이 들었던 시간, 마이너리티로서 정체성을 자각하며 오히려 세심하게 여러 사정에 놓인 이들을 살피게 되는 과정, 수면을 잃어내고 종사해 돈으로 거슬러 받은 일, 온종일 부엌과 아이를 맴도는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의 갈등 등이다. 그는 "제가 '교포'라는 부류에 속하게 됨을 알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이주를 경험했다. 결혼하면서 새 동네, 새집에 살게 된 것뿐이었는데 등 뒤에서 먼저와 살던 이민자들이 '신부'를 한국에서 데려왔는데라고 수군거렸다"며 "저는 수동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나의 질문'에는 작가의 최근 관심사인 '기업과 집단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도 언급돼 있다. 영국 수마하 대학의 교육 철학자 실친, 브라질 기업 메르쿠리 이야기 도 실려있다.

최만식/기자

KT 시즌, 뮤지컬 라이브쇼 '미드나잇' '명성황후' 공개

KT Seezn(시즌)의 뮤지컬 라이브쇼 '뮤:시즌'이 뮤지컬 '미드나잇:액터뮤지션'과 '명성황후'를 단독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새해를 맞아 특별히 2주 연속으로 진행한다. '뮤:시즌'은 뮤지컬과 시즌이 합쳐진 단어로 뮤지컬 한 편을 매 회 선정해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음악 라이브 프로그램이다. 라이브 무대와 함께 토크를 진행해 무대에서 보기 힘든 배우들의 색다른 모습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다. MC는 뮤지컬 음악감독을 활동해온 김문정 음악감독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슈퍼주니어 유현이 맡고 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배우들에게 직접 응원 메시지를 전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소통하며 뮤지컬을 즐길 수 있다.

향, 낯선 손님 '비지터' 역에 김찬호가 출연한다. 연주는 물론 노래와 연기까지 소화하는 액터뮤지션도 함께 출연해 '뮤:시즌'만의 라이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월 25일에는 25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명성황후'가 생중계된다. '명성황후'는 비극적 삶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가로서의 진취적인 모습과 고뇌를 담아내 95년 초연 이래, 꾸준히 사랑 받아온 창작 뮤지컬이다.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하는 역사를 쓴 작품이기도 하다. 25주년 기념 공연답게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은 '명성황후'의 주연 중에서, '뮤:시즌' 생중계에는 명성황후 역에 신영숙, 고종 역에 강필석, 흥계훈 역에 박민성, 그룹 비투비(BTOB) 이창섭이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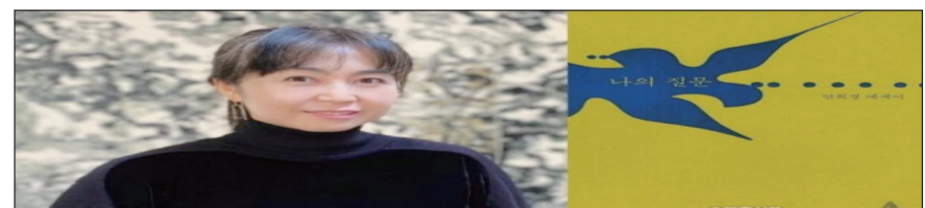
'미드나잇:액터뮤지션' 편은 18일 저녁 8시, '명성황후' 편은 25일 저녁 8시에 각각 Seezn(시즌) 앱에서 단독으로 생중계 된다. 통신문 관계없이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생중계 방송 다음날 저녁 6시부터는 다시보기(VOD)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 모바일미디어사업P-TF장유현중 상무는 "새해를 맞아 공연계와 뮤지컬 팬들에게 활력을 선



사하기 위해 2주 연속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공연이나 팬팅을 관람할 수 없는 고객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비대면 라이브 콘텐츠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임시소방시설 불시단속...위법사항 확인

연면적 5000㎡이상 330개소 단속, 139개소 141건 위법사항 확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 20명으로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 시 인명피해가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2019년 건축공사장 내부에서 예폭시 방수 보수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화재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



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이번 불시단속 결과 전체 330개소 중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구로구 00공사장은 콘크리트 양생용 등유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서초구 00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를 지하 2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강남구 00공사장은 대형소화기가 작동 불량상태로 지상 1, 2층에 설치되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해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 이외에

도 단속반은 위험물 저장장소 시공간 장치 불량, 위험물 저장소 소화기 비치 불량,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위험물 저장장소 소화기 총알 불량, 위험물 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제거 등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군, 코로나19 대응 노인요양시설 방역실태 점검 나선다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총 14개 시설 현장점검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 시설의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 노인복지담당 외 1명의 점검반이 관내 노인요양시설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4개소 등 모두 14개소 시설의 현장방문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여부 주 1회 시설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현황 방역물품 비치여부와 시설물 관리 실태 시설 입소와 출입 시 지침준수 실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군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실시 여부와 노인요양

시설 방역점검 결과 보고서를 18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이용에 대한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면 면회 금지,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에 대한 권장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이용시설의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준수와 물 등 음료의 개인별 섭취 안내 등 코로나19 감염방역실태 점검을 통해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과 이애숙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 종사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근기자

전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준법조업 확립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위반 시 엄중 조치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증폭을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은 주로 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탄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법적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엄정한 단속과 함께 겨울철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어선 안전용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긴급분산조치 시행

자가격리 가능한 종사자는 자택 격리...추가 확산 막기 위해 총력

안산시는 13일 상록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분산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날 해당 시설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이용자와 이들의 생활을 도울 시설 종사자를 대부도 임시 생활시설로 옮긴다.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되는 이용자는 모두 20명이다. 해당 시설 전체 이용자는 47명으로 확진된 이용자 19명과 전날 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1명, 별도의 건물에서 격리 중인 7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재검 판정을 받은 이용자는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송된다. 복지시설 전체 종사자 31명 중에서는 8명이 대부도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진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복지시설을 나와 자택에서 격리를 이어나간다. 이용자 47명, 종사자 31명, 지원인력 3명 등 모두 81명이 생활하던 해당 복지시설은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모두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지원인력은 자가격리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복지시설은 지난 8일부터 이날 24일 정오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시는 나머지 이용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당초 16일 예정이었던 3차 전수검사를 전날 긴급하게 실시했고 경기도 등 방역당국의 협력으로 임시 생활시설로의 긴급분산조치를 결정했다. 시설 내 인원 모두가 이송되면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며 “격리도와 협력해 긴급분산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가축분뇨 무단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 초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계도 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원시 축산과장 형진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으며 “개별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경산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추진

경산시는 민속의 명절인 설 연휴 전 및 연휴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2021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는 2021.2.1. ~ 2.14.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업소를 중심으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며 설 연휴에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경산시 환경과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염색·세탁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약취다발업체, 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체 주변으로 경산시 환경과

에서 설 연휴 전인 2021.2.1 ~ 2.10에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주간에는 경산시 환경과 상황실, 야간에는 경산시 당직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고향을 찾기 힘든 시기에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3차

여자대표팀, 도쿄올림픽 플레이오프 대비 최종 소집훈련 실시 '올해 첫 훈련' 김학범 감독 "선수들 눈빛에서 각오 느껴"

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전라남도 강진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 달간 최종 담금질에 나선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현재 시즌 중인 해외파 선수를 제외한 26명의 선수를 소집하여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강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에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벨 감독은 이번 소집 훈련 후 해외파 합류 등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중국과의 도쿄올림픽 플레이오프는 홈앤드어웨이로 열리며 1차전은 2월 19일 저녁 8시(한국시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2월 24일 저녁 8시 30분(한국시간) 중국 쑤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면 한국 여자축구 사상 최초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강진과 서귀포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집 훈련은 플레이오프를 앞둔 최종 훈련으로서 정예멤버가 모여 발을 맞춘다. 베테랑 수문장 김정미를 비롯해, 김혜리, 이민아, 장슬기(이상 인천현대제철), 여민지(수원도시공사), 박예은(경주한수원) 등 기존 주축 선수들이 소집됐다. 또한 여자 U-20세대의 주요 선수들도 이번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WK리그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올 시즌 WK리그에 모습을 드러낼 추효주(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해 조미진(세종고려대)과 이정민(경북위덕대), 이은영(울산현대고)도 벨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한편, 여자 대표팀은 지난해 2월 제주에서 열린 올림픽 최종예선 이후 8개월 동안 소집훈련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여자 U-20 대표팀과의 스페셜 매치, 11월 부산 소집 훈련을 통해 호흡을 맞추며 조직력을 다졌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대비 최종 훈련 소집 명단(26명) GK 김정미(인천현대제철), 윤영글(경주한수원), 강가애(세종스포츠도) DF 김혜리, 임선주, 심서연(이상 인천현대제철), 어희진(세종스포츠도), 추효주(수원도시공사), 박세라, 이세진(이상 경주한수원), 권하늘(보은상무) MF 권은솜(수원도시공사), 박예은, 전은하(이상 경주한수원), 장슬기, 이민아, 이영주(이상 인천현대제철) FW 강재림(인천현대제철), 문미라, 여민지(이상 수원도시공사), 김상은, 최유리(이상 세종스포츠도), 손화연(창녕WFC), 조미진(세종고려대), 이정민(경북위덕대), 이은영(울산현대고)* 선수 소속팀 정보는 1월 10일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기준임. 단, 2021 WK리그 신인 드래프트 지명 선수는 지명된 구단으로 표기

최만식/기자

"선수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각오를 느낄 수 있다." 김학범 감독은 2021년 첫 소집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학범 감독은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도쿄올림픽 대비 2021년 1차 국내 훈련을 갖는다. 김학범 감독은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훈련 전 인터뷰에서 이번 소집 훈련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밝혔다.

김학범 감독은 "1년 전 AFC U-23 챔피언십에 나가기 전에 강릉에서 훈련을 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올해도 올림픽 대비 첫 훈련을 위해 이곳을 다시 찾았다. 선수들도 만족하고 있다"면서 "강릉은 남부지방과 기온이 비슷한데다 선수들이 여러모로 힘든 와중에 힐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소집 훈련에 최적의 장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지난해 여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해 아직까지 개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학범 감독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김학범 감독은 특히 이번 소집 훈련이 "국내 선수들을 점검하는 마지막 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과 6월에 평가전이 예정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전에 국내 선수 중 가능성 있는 선수를 최대한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첫 발탁된 박태준(성남FC), 이동률(제주유나이티드), 최준(울산현대)을 비롯해 2019년 이후 오랜만에 명단에 오른 전세진(김천상무) 등 이번 소집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려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김학범 감독은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이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 선수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다"며 다부진 각오로 가득 찬 선수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학범 감독은 도쿄 올림픽에서의 목표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기록을 깨고 싶다. 나의 바람만이 아니라 선수들 모두의 바람"이라며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학범 감독은 강릉에서 체력 강화와 회복에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한 뒤 19일 서귀포로 이동한다. 서귀포에서는 K리그 팀들과의 네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학범 감독은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요하는 훈련이 많아 선수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잘 따라오고 있다.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FC안양, 포항스틸러스에서 신인 공격수 최민서 임대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이 포항스틸러스로부터 신인 공격수 최민서를 임대 영입했다. 최민서는 포항스틸러스의 유스팀인 포항제철고를 졸업한 후 2021 시즌 포항스틸러스에 입단한 신인 선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에 열린 FIFA U17 월드컵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자신의 이름을 국내 팬들에게 알렸다. 특히 조별리그 1차전 결승골, 16강 결승골 등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올 시즌 신인으로 포항에 입단한 그는 곧바로 안양 임대를 결정했다.

최민서는 상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가 큰 장점으로 꼽히는 스트라이커다. 문전에서 쇄도하는 능력과 어느 위치에서든 슈팅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양의 공격진에 큰 보탬이 되리라는 예상이다. FC안양에 합류한 최민서는 "임대로 합류했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안양을 내 팀처럼 생각하고 더 헌신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부/기자

FC안양, 포항에서 활약한 측면 공격수 심동운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이 포항스틸러스에서 활약한 측면 공격수 심동운을 영입했다. 신갈고-홍익대 출신의 심동운은 지난 2012년 전남드래곤즈를 통해 K리그 무대에 발을 디뎠다. 전남에서 세 시즌 동안 K리그 79경기에 나서 11골 4도움의 기록을 낸 그는 2015 시즌 포항스틸러스로 팀을 옮겼다. 포항에서도 출전 기회를 꾸준히 부여 받은 그는 군복무를 해결한 상주상무에서의 기간을 제외하고 2020 시즌까지 포항에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기록은 총 258경기 41골 12도움. 심동운은 활발한 활동량과 스피드가 큰 강점으로 꼽히는

측면 공격수다. 원포워드 뿐만 아니라 처진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공격 옵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특히 그는 중요한 승부처마다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던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양의 공격진에 큰 활로가 될 전망이다. FC안양에 합류한 심동운은 "축구도시 안양에 입단하게 돼 행복한 2021년을 시작하게 됐다. 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부/기자

주장 맡은 정태욱 "힘든 훈련 독하게 이겨내야"

"힘든 훈련이지만 선수들이 독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남자 U-23 대표팀의 2021년 첫 소집 훈련에서 주장을 맡은 정태욱(대구FC)이 동료들을 격려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은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훈련을 갖는다.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태욱은 "친구들, 동생들과 함께 소집돼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어 기분 좋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잘 준비해서 올림픽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님의 동계훈련이 많이 힘든 편이지만 선수들이 독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정태욱은 지난해 1월 열린 AFC U-23 챔피언십의 우승 멤버로서 김학범 감독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해왔다. 그는 많은 동생들과 함께 하는 이번 소집 훈련에서 주장을 맡은 것에 대해 "동생들과 같이 어울려 부상 없이 훈련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

에 선수들 모두 좀 더 분위기를 다잡고 하나하나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가량 연기된 도쿄 올림픽은 아직까지도 개최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태욱은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림픽이 꼭 열리기를 바란다.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며 다부진 모습을 보였다.

정태욱은 "올림픽은 누구나 꿈꾸는 무대이고 경험하고픈 무대다. 어떤 선수든 욕심이 날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훈련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 올림픽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만식/기자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4차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